

올 콘텐츠산업 빛낸 이들은 누구? 국내 최초 사상지 '개벽' 재탄생되다

게임 '로스트아크' 등 개발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창업자 8일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시상식' 서 보관문화훈장 수훈

영화 '기생충'·드라마 '킹덤' 해외진출 유공 대통령표창

캐릭터 부문에 '뽕수' 만화 부문 '신의 탑'도 입상



작품을 시상하는 행사다. 문체부는 신한류 확산과 콘텐츠산업이 국민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데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올해 콘텐츠 해외진출 유공 부문에 문화훈장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해외진출유공포상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포상 ▲게임산업발전유공포상과 ▲애니메이션 대상 ▲캐릭터 대상 ▲만화 대상 ▲이야기(스토리) 대상 등 7개 부문에서 총 49명(건)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해외진출유공 부문에서는 바른손 이엔에이 확산에 대표와 에이스토리 이상백 대표가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확산에 대표가 제작을 맡은 영화 '기생충'은 국내에서 1000만 관객을 끌어모았다. 세계 202개국에 판매돼 한국영화 역대 최대 판매 기록을 세웠다. 또한 제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 최초로 황금종려상을 받고,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포함한 4개 부문에 수상하는 등 신한류 확산과 한국영화의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이상백 대표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좀비 드라마 '킹덤' 연속 기록물을 기획·제작했다. '킹덤'은 세계적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를 통해 190여 개국에 27개의 언어로 제공되어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부문에서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신원호 시제이엔엠(CJ ENM) 감독과 '대기획 23.5'의 최필곤 한국방송(KBS) 감독이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게임산업발전유공 부문에서는 카카오킴즈 남궁훈 대표와 쉐더블유씨지(WCG) 서태건 대표가 대통령표창을 수상한다.

애니메이션 부문에서는 핑크퐁 아기상어를 만든 유·아동 콘텐츠 기업 스마스트디가 제작한 방송 애니메이션 '아기상어 울리 뚜루 뚜루'가 대통령상을 받는다. 아기상어 울리가 다양한 바닷속 친구들을 만나 펼치는 모험을 다룬 이 작품은 올해 한국방송(ITV)과 투니버스 등을 통해 방영되어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캐릭터 부문에서는 핑크 캐릭터 '뽕수'가 EBS 연습생으로서 겪는 일상과 인기 창작자가 되기 위해 도전하는 과정을 소개하는 '자이언트 핑크브이'가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작품은 '진환경', '기부' 등 선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화를 전개하며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만화 부문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소녀를 찾아 답에 오르기 시작한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시우(SIU) 작가의 웹툰 '신의 탑'이 대통령상을 수상한다. 이 작품은 네이버웹툰 전체 댓글 수에서 1위를 기록한 바 있는 화제작이다.

이야기(스토리) 공모 부문에서는 현실 속에서 저마다의 상처와 비밀을 지닌 청년 여행자 다섯 명이 일행이 돼 함께 펼치는 이야기를 담은 '외계인 게임'이 대통령상을 받는다. 이 작품은 1398명이 응모한 이야기(스토리) 공모 부문에서 3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치열한 경쟁을 뚫고 1등을 차지했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우리의 콘텐츠들이 세계에서 신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다"면서 "문체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콘텐츠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 대책 속에 수상자만 참석하는 간소한 행사로 진행된다. /뉴스

원광대, '다시 개벽'으로 복간

한국 최초 사상지로 알려진 '개벽'이 원광대학교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 소장학자들에 의해 '다시 개벽'을 제호로 복간됐다고 3일 알려졌다. 원광대학교는 '개벽'이 원불교학과 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박길수 발행인과 편집인을 맡고 있는 조성환 원불교사상연구원 책임연구원, 편집자문위원인 박맹수 총장의 지원을 바탕으로, '다시 개벽'으로 복간됐다.

'개벽'은 3·1운동 이듬해인 1920년 천도교 청년들에 의해 창간돼 1926년 72호 발간을 끝으로 폐간됐다.

올해 창간 100주년을 맞아 계간 '다시 개벽(모시는사람들)'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다시 개벽'은 현재 새로운 세상을 개벽해야 하는 문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잊혀진 전통의 재발견과 신격화된 서양의 재해석, 끊어진 세대를 잇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책의 구성은 '다시'의 철학을 반영해 잊혀진 한국학을 새로 읽는 '다시 읽다', 원로와 대화를 나누는 '다시 듣다',



새로운 문제의식을 표현하는 '다시 쓰다', 청년들의 소리를 담아내는 '다시 열다', 개혁과정을 번역해서 소개하는 '다시 있다'와 같은 주제로 구성돼 있다.

또 겨울은 '서구중심주의 비판', 봄은 '한국사상 발굴', 여름은 '지구인문학 모색', 가을은 '현대철학의 모험' 등 마치 사계절이 순환하듯 계절마다 주제를 반복해서 다룰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청소년 힐링 뮤지컬 '첼.린.저.스' 16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오는 16일 오후 7시 부모와 함께 보고 싶은 청소년 힐링 뮤지컬 '첼.린.저.스 - Challengers' 공연이 펼쳐진다. '첼린저스'는 2012년 초연 이후 해마다 많은 청소년들로부터 부모와 함께 보고 싶은 뮤지컬로 꼽힐 만큼 유익하고 재미있다는 찬사를 듣고 있으며 청소년기의 꿈과 우정, 포래들의 학교폭력, 선택과 행동에 주어지는 책임의식에 대한 현재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화제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치유와 힐링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번 공연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겪는 방황과 폭력 등 가족과 지역사회가 관심

을 가져야 할 주제로 되어 있어,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를 비롯한 일선 학교 교사들이 관람하기에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공연장 거리 두기 객석제, 방역 소독, 발열 체크, 자가 문진표 작성 등 생활 속 거리두기 공연장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할 예정이며,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람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미착용 시 입장이 금지된다.

관람권 예매는 12월 8일 오전 8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구매 가능하며 14세 이상 관람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기자

명인·명창과 함께 즐기는 연말연시 | 국립민속국악원, 9일 예원당서 '소리길을 걷다' 무대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오는 9일 오후 7시 예원당에서 송년공연 '남원 명인, 명창-소리길을 걷다'를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현존하는 최고의 남원출신 명인, 명창과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젊은 예인들이 꾸미는 고풍계 예술무대로, 남원지역의 예인들을 통해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선사하기 위한 공연이다.

진행에는 김필원 아나운서, 김무길 명인의 거문고산조, 송화자 명인의 가야금산조, 박양덕 명창의 수궁가 중 '토끼 화상 그리는 대목', 이난초·전인삼 명창의 입체창 '홍보가 중 박 타는 대목', 강정숙 명창의 가야금 병창, 왕기석 명창의 단막창극 '심청가' 중

심봉사 눈 뜨는 대목'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또한 MBN 보이스퀸'에 출연해 국악과 가요를 결합한 독창적인 창법을 선보인 차세대 명품 소리꾼 조엘라와 영화 '소리꾼'에서 주연배우로 활약한 이봉근이 출연해 입체창 '춘향가 중 사랑가'를 선보이며 보고 듣는 재미를 더한다.

한편 이번 공연과 관련, 관람은 사전예약제(선착순 100명)로 예약은 전화(063-620-2324)나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플러스친구로 가능하며, 공연 종료 관객들을 위해 향균 마스크와 마스크 목걸이를 증정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시의회
GIMJE CITY COUNCIL

언제! 어디서나! 시민에게 힘을 주는
김제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소통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